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믿음
은혜
일치를 향한
모임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신년주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8. 거룩 거룩 거룩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열망을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되살 수 없는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신비와 서로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 인도자
- ▲ 교 독 문 93. 새해(1)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함께
- ▲ 성경봉독 요 1:9~18 1부: 인도자/2부: 강세기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마중물찬양대
II.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청파찬양대

말 씬 그 빛 안에서 걷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새 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신천 임원 문답 신천임원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
라 사십시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막을 깨고 진리의 빛으로 임하신 주
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미한 영혼을 말갭게 씻고, 미쁘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
납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올해에도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재미지게

뛰니 뛰니(머니머니) 해도 복 중에 제일은 사람복(인복)이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다. 살면서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이다. 소신껏 시골살이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첫 귀농지에서부터 좋은 사람들이 끌어 주고 붙잡아 준 덕분인데, 가끔 그때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다 보면 나무실 마을 할머니들이(특히 설매실 할머니가) 지나가는 대목에서 버퍼링 현상 비슷한 게 일어난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마음의 짐 때문이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나 이사 간 뒤로 그 마을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시는 이인화 선생님이었다.

“할매들이 제가 이사 와서 지금까지 청라 씨랑 상아 씨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할매들 한을 풀어 줄라꼬요. 저랑 서 선생님이 할매들 세 분 모시고 그 집에 갈라 카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정말요? 저야 물론 대환영이지만 할머니들이 괜찮으실까요?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고속도로 타면 두 시간 반이면 가는데예. 살살 운전해서 가니 괜찮을 겁니다. 나들이 간다고 할매들이 벌써부터 꽃단장하고 난리라예.”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했다. 할머니들이 나를 보러 그 먼 데서 오신다니! 나는 아이들과 신랑에게 곧장 그 사실을 알리고 그날부터 할머니들 맞이 준비 모드에 들어갔다. 집 안팎을 열심히 치우고(치위도 치위도 끝이 없고 치운다고 치위도 티도 안 나는 쑥쑥한 집이긴 하지만 ^^;) 어떤 음식으로 대접할까 골똘히 생각하여 장도 보고 말이다.

그리하여 할머니들 오시는 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점심 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정보다 조금 일찍 밖에서 할머니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퐁퐁 튀고 팽그르르 공중제비라도 하는 듯 활기찬 웅성거림. 아, 그리웠던 저 목소리들!!!

“이보래이! 아덜이 그새 일케 컸나? 놔 노면 크는 건 금방이다카이.”

“아들 둘에 딸 하나제? 잘 했다. 그기 질로 좋다.”

“어데로 들어가노? 여그가?”

할머니들을 부엌 밥상 앞으로 모시고 점심을 대접했다. 할머니들한테 얻어먹은 음식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차린 바다 향기 가득한 밥상이었다. (산골에서 오셨으니 바다 향기를 선물해야 할 것 같았다.) 찰밥, 조갯살 넣은 미역국, 꼬막무침, 보리굴비, 죽순나물, 김장김치... 사실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건만 할머니들은 차리느라고 욱 봤다며 맛있게들 잡썰 주셨다. 반주로 소주도 한 잔씩 하시면서 ^^

... 얼른 2부 순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할머니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시간! 아이들은 할머니들을 기다려 온 며칠 동안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지 빠지 않고 씩씩하게 노래를 불렀다. ... 할머니들은 물론 손뼉을 치며 좋아라 하셨다.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아 잘 키웠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셨다.

“아덜 먹여 살리려면 아바이가 농사 부지런히 지야겠다. 뫼이든지 마이 송귀라. 송구고 돌아서서 거두고 송구고 또 거두고 그래 하면 된다. 그라마 아덜은 걱정 읍다. 잘 키웠데이.”

“아덜이랑 이래 사는 거 보니 좋다. 참 재미지겠다. 재미진 세월이다카이.”

“하모! 재미질 때제. 재미진 세월이 한없을 것 같애도 안 그렇더라. 지나고 나면 잠깐이라. 이래 재미지게 살믄 된다. 고거뿐이라.”

할머니들은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다. 가난하게 사는 딸래미 보러 왔다 집에 돌아가는 친정 엄마 같은 눈빛으로 집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런 할머니들 마음이 고마워서 나는 할머니들을 배웅하며 한 분 한 분을 꼭 안아 드렸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안녕하시기를!!!

덧.

할머니들과의 짧은 만남이 있고 얼마 뒤, 아이들과 저수지 너머 산에 가서 놀았다. 태풍에 쓰러진 큰 나무가 우리들의 놀이터! 다올이는 가지고 간 줄로 해떡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신통방통하다. 혼자서 줄로 별 걸 다 만들며 논다), 다랑이와 다니는 같이 간 고양이들과 어우러져 나무에 올라타 장난을 치고. 그 그림 같은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할머니들 말씀이 떠올랐다. 아이들이야말로 한 순간 한 순간을 재미지게 살아 내는 재주를 가진 기묘한 능력자들이 아닌가! 그들 덕분에 그날도 노래가 왔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노래, ‘나무실 할머니들의 신신당부’다.

잠깐, 아주 잠깐/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새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재미지게 살아라!

늦게 온 소포

고두현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테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빠 왔구나.

울다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엿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 보낸
소포 끈 찬찬히 풀다 보면 낮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걸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버선 한 짝
해진 내의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 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아홉 개.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났다고 몇 개 따서
너어 보내니 씹을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았지야
봄 별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르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향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리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권미정	김근중	정옥영	김기철	김수진 ^b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량	이은옥	김일재	김재홍	최희영	김정민	이혜령	김정훈	이진영 ^a	김종락	박영신
김태정	김태한	김형근	김호식	최원영	남명진	김애정	노연정	마재국	손의나	문홍일
문희영	박경원	박규석	박경선	박기원	이미영	박노수	남인자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상옥	임서영	배재경	이수정	서수진	서해나	서혜원	소광섭	김숙희	손이주	송형운
하미림	신동완	신유식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오미숙	오자영	왕수명	유중희	유지은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민관	송용화	이범석	류정옥	이성범	권현숙
이시경	이영하	이용석	이은주	이재우	배이화	이재훈	이종후	이호원	임당재	임선자
임형옥	장기풍	장영숙	장현희	전혜연	정성훈	정연희	조경자	조두희	오연훈	조수아
조치형	조항범	조호진	최승주	최승주	조호진	최옥분	최윤선	최정우	이윤숙	최종원
추현영	한기택	한상익	정영선	한선희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한지원	홍복선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¹						

감사헌금

강혜린	김나름	김세진	김와니	권윤경	김윤옥	김일재	김재영	김정완	서담이	나영란
박지선	백창운	허정윤	서한이	신기호	심민지	심화섭	정영란	안미숙	유성애	유수진
윤형배	오한나	이고임	이공연	이상도	이재국	임은영	전병호	정상준	채인성	채일석
최정우	이윤숙	하현일								

생일감사헌금 김희우

녹색꿈헌금 구혜린 방종미 이영하 이행진 임설희 최희영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쉽)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신년주일 :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입니다.
2. 신천임원소개 : 지난 당회에서 신천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을 소개합니다.
신천집사 - 김용규 김지윤 서지연 송 명 신동완 임미진 임선자 장윤지 장혜정 정은선
정택중 한기택
신천권사 - 변재민 이준립 홍춘숙 김승현 박경선 박기영 박영신 이소애 이오복 이현순
3. 오후집회 : 올해부터 오후집회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첫 주는 동교회, 둘째 주는 속회, 셋째 주는 선교회, 넷째 주는 부서모임입니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신년사경회가 6-9일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5. 재무교육 : 다음 주일 오후 1시30분 세미나실에서 각 부서와 모임의 회계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2019년 회계 장부를 지참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모집 : 1부 찬양대에서 봉사할 찬양대원과 교회학교에 봉사할 교사(중고등부 2명, 아동부 4명, 유아유치부 2명)를 모집합니다.
7. 결혼 : 이정래 씨와 김은주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1일(토) 오후 1시 에디스웨딩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8. 교회생활 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 공간이 협소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1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 떡 대접 : 박기영 주은경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사 42:1-9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곽권희	류건형	이범석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임주빈 이국노 박미영 최현옥 김신실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기영			
식당봉사	오늘	박영신 이미휘 고혜경 채옥춘 최미자 최광희 김종락 설규범			
	다음주	이현숙 이은미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김태한 임당재 신정훈			
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오늘)	3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3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